

2019년 3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비둘기적 FOMC 불구 혼조 마감 트럼프 “대 중 관세 상당기간 유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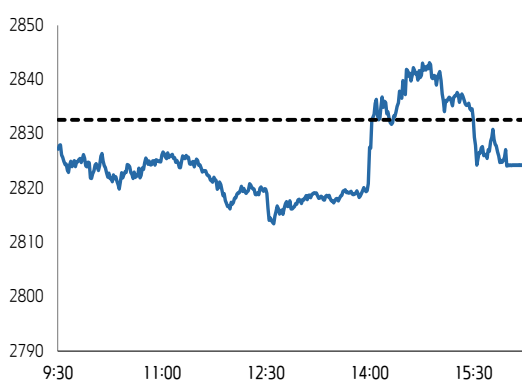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미·중 무역협상 ②브렉시트 연기 ③FOMC 결과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및 브렉시트 연기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연준이 FOMC 를 통해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하자 상승 전환 성공.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고, 정책에 대한 인내심 강조한 점도 긍정적.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FOMC 보다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차 매물 출회되며 혼조 마감(다우 -0.55%, 나스닥 +0.07%, S&P500 -0.29%, 러셀 2000 -0.76%)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협상 ②브렉시트 연기 ③FOMC 결과에 따라 변화. 먼저 중국과의 무역협상 불확실성 부각.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 관세는 상당기간 유지 될 것이며,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라고 주장. 이는 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중국이 협상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문제는 2,500 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기업이 이익 개선 기대감은 약화. 한편, 브렉시트 연기 불확실성 확대도 주목. 메이 영국 총리는 6 월말까지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EU 에 제시. 그러나 EU 가 다음주까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노딜도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 한편, 관련 이슈는 21~22 일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논의.

연준은 FOMC 를 통해 올해 미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2.3%→2.1%)하고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2.9%→2.4%). 핵심 인플레이션은 2.0%로 유지 했으나, 금리 전망을 하향조정 함으로서 올해 연준은 금리 동결 시사. 자산매입 축소도 5 월부터 규모를 줄인 후 9 월에 종료한다고 발표. 한편,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 더불어 정책 변화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내심을 강조. 금융시장은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적 발표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했으며, 국채금리도 하락.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이미 일부 예견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 변화폭 축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77.10	-0.02	홍콩항셱	29,320.97	-0.49			
KOSDAQ	749.76	+0.11	영국	7,291.01	-0.45			
DOW	25,745.67	-0.55	독일	11,603.89	-1.57			
NASDAQ	7,728.97	+0.07	프랑스	5,382.66	-0.80			
S&P 500	2,824.23	-0.29	스페인	9,405.60	-0.91			
상하이종합	3,090.64	-0.01	그리스	715.47	+0.14			
일본	21,608.92	+0.20	이탈리아	21,330.21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외로 퍼질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기술주 강세

엑손모빌(+0.56%), 데본에너지(+3.34%), EOG리소스(+3.24%)등 원유 시추업체와 솔룸베르거(+2.40%), 할리버튼(+2.87%) 등 에너지 서비스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애플(+0.87%)은 무선충전 및 음성 제어 기능을 갖춘 새로운 Airpod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넷플릭스(+4.58%)는 애플이라는 경쟁자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Stranger Things' 시즌 3 예고편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알파벳(+1.99%)은 EU 반독점 관련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스트리밍 게임 기대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아마존(+2.01%)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0.59%)은 시간 외로

한편, JP모건(-2.13%), 웰스파고(-1.96%), BOA(-3.41%) 등 금융주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그러나 넥스트라(+0.73%), 듀크에너지(+0.29%) 등 유틸리티 업종과 리얼티인컴(+0.99%), 사이먼 프로퍼티(+0.32%) 등 리츠금융 업종 등 배당주들은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속에 상승 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3.49%)는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8%	대형 가치주 ETF(IVE)	-0.84%
에너지섹터 ETF(OIH)	+1.72%	중형 가치주 ETF(IWS)	-0.70%
소매업체 ETF(XRT)	-0.90%	소형 가치주 ETF(IWN)	-0.90%
금융섹터 ETF(XLF)	-2.06%	대형 성장주 ETF(VUG)	+0.22%
기술섹터 ETF(XLK)	-0.27%	중형 성장주 ETF(IWP)	-0.6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8%	소형 성장주 ETF(IWO)	-0.69%
인터넷업체 ETF(FDN)	+0.65%	배당주 ETF(DVY)	-0.81%
리츠업체 ETF(XLRE)	+0.4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9%
주택건설업체 ETF(XHB)	-0.6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3%
바이오섹터 ETF(IBB)	-0.59%	미국 국채 ETF(IEF)	+0.70%
헬스케어 ETF(XLV)	-0.69%	하이일드 ETF(JNK)	+0.34%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66%
반도체 ETF(SMH)	-0.86%	Long/short ETF(BTAL)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부동산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5% MSCI 신흥 지수 ETF 도 0.1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19 계약)속에 0.20pt 하락한 280.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4.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올해 금리동결을 시사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OMC 결과는 일정부분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 무역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예상(59 억 2 천만 달러)보다 소폭 양호한 59 억 4 천만 달러로 발표 했으나 시간 외로 1% 넘게 하락 중이다.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으며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원유재고 급감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은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원유재고가 전주 대비 959 만 배럴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가솔린 재고도 459 만 배럴, 정제유 재고도 413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유시설 가동률은 지난주(87.6%) 보다 크게 증가한 88.9%로 발표되었다.

2 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1.8%)를 상회하는 결과였다. 한편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로 지난달 발표치(yoy +1.9%)를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지난 11 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60 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OPEC 의 공급감소 및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힘입어 지난 11 월 이후 처음으로 60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다. 특히 EIA 가 지난주 원유재고가 959 만 배럴 급감 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FOMC 이후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자 재차 반등에 성공하며 1.4% 상승 마감 했다.

달러화는 장 초반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및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FOMC 이후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했다. 파월 연준의장 또한 금리 결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 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연기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FOMC 이후 강세로 전환했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 연기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 이후 연준이 FOMC 를 통해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축소 종료를 9 월에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10 년물 국채금리가 2.5%를 하회하는 등 낙폭이 확대되었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했다. 그러나 시간 외로 달러약세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 를 앞두고 무역협상 불확실성 불구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0.08% 하락 했으나, 철근은 0.6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0.23	+1.59	+2.80	Dollar Index	95.979	-0.42	-0.59
브렌트유	68.50	+1.32	+1.41	EUR/USD	1.1416	+0.56	+0.79
금	1,301.70	-0.37	-0.58	USD/JPY	110.71	-0.61	-0.41
은	15,318	-0.35	-0.89	GBP/USD	1.3203	-0.49	-1.01
알루미늄	1,937.00	-0.46	+1.68	USD/CHF	0.9922	-0.70	-1.19
전기동	6,457.00	-0.03	-0.24	AUD/USD	0.7115	+0.38	+0.30
아연	2,863.00	+1.60	+0.56	USD/CAD	1.3308	-0.09	+0.05
옥수수	371.50	+0.07	+1.36	USD/BRL	3,779	-0.27	-0.98
밀	464.75	+1.81	+3.91	USD/CNH	6,6874	-0.45	-0.21
대두	906.00	+0.22	+0.55	USD/KRW	1130.40	-0.02	-0.19
커피	94.75	-1.97	-2.97	USD/KRW NDF1M	1124.85	-0.45	-0.38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23	-8.96	-9.86	스페인	1.161	-0.80	-2.40
한국	1.987	+0.70	+1.70	포르투갈	1.313	+1.60	-2.70
일본	-0.036	+0.40	+0.60	그리스	3.774	+3.10	-4.40
독일	0.084	-1.30	+1.90	이탈리아	2.524	+3.20	-2.50